

I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1. 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¹ 추이²

가. 전체범죄³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 2020년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1,714,579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308.1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전체범죄의 발생비는 2019년 대비 3.0% 감소한 수치로, 지난 10년 대비 11.8%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전체범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전체범죄에서 교통범죄⁴를 제외한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1,337,162건(전체범죄의 78.0% 비중)으로, 인구 10만명당 2,579.9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의 발생비는 2019년 대비 1.8% 감소, 지난 10년 대비 4.0%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큰 변동은 없이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11년 1,062.5건에서 2020년 728.2건으로 지난 10년간 31.5%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전체범죄의 발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8.3%에서 2020년 22.0%로 6.3%p 감소하였다.

1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의미

2 2014년 형법범 분류기준을 개편('2015 범죄분석')함에 따라 동일한 기준에 대한 연도별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10년치 자료에 적용, <표 1>에서 제시된 각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와 발생비 수치는 2014년 이전에 발간된 '범죄분석'의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형법 범죄분류기준은 <부록 1> 참조)

3 전체범죄란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모두 포함한 범죄를 의미

4 교통범죄는 교통사고 범죄와 교통사고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로 구분, 교통사고 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이 포함되며, 기타 교통범죄에는 '교통방해의죄',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이 포함

표 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⁵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⁶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1	1,902,720	3,750.4	-	1,363,691	2,687.9	-
2012	1,934,410	3,796.8	1.2	1,390,209	2,728.7	1.5
2013	1,996,389	3,903.7	4.1	1,421,991	2,780.5	3.4
2014	1,933,835	3,767.6	0.5	1,359,632	2,648.9	-1.5
2015	2,020,731	3,921.5	4.6	1,423,258	2,762.0	2.8
2016	2,008,290	3,884.8	3.6	1,407,320	2,722.3	1.3
2017	1,824,876	3,524.4	-6.0	1,294,926	2,500.9	-7.0
2018	1,738,190	3,353.9	-10.6	1,304,840	2,517.7	-6.3
2019	1,767,684	3,409.2	-9.1	1,361,661	2,626.2	-2.3
2020	1,714,579	3,308.1	-11.8	1,337,162	2,579.9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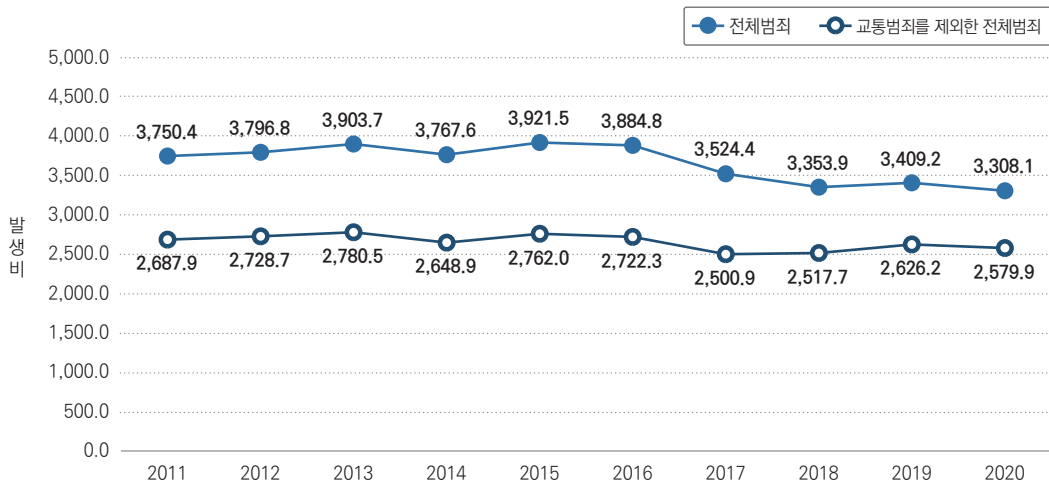


그림 1 전체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5 표에 제시된 2012년과 2013년의 범죄발생 건수는 2015년 범죄분석 발간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를 정정한 수치

6 증감률은 기준년도인 2011년 발생비 대비 변화율

나.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

1) 형법범죄⁷와 특별법범죄

- 2020년 형법범죄의 발생건수는 1,044,438건으로, 인구 10만명당 2,015.2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형법범죄 발생비는 2019년 대비 0.3%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2.2%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큰 변동은 없이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 2020년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는 670,141건으로, 인구 10만명당 1,293.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특별법범죄 발생비는 2019년 대비 7.7%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27.3%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특별법범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최근 10년간 형법범죄의 발생비가 특별법범죄의 발생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7 형법범죄에는 형법 각 장의 범죄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 처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이 포함('일려두기'의 범죄분류체계 참조)

표 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형법범죄			특별법범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1	1,000,849	1,972.7	-	901,871	1,777.6	-
2012	1,037,166	2,035.7	3.2	897,244	1,761.1	-0.9
2013	1,056,704	2,066.2	4.7	939,685	1,837.4	3.4
2014	1,016,209	1,979.8	0.4	917,626	1,787.8	0.6
2015	1,047,761	2,033.3	3.1	972,970	1,888.2	6.2
2016	1,005,689	1,945.4	-1.4	1,002,601	1,939.4	9.1
2017	958,865	1,851.9	-6.1	866,011	1,672.5	-5.9
2018	988,398	1,907.1	-3.3	749,792	1,446.7	-18.6
2019	1,041,395	2,008.5	1.8	726,289	1,400.8	-21.2
2020	1,044,438	2,015.2	2.2	670,141	1,293.0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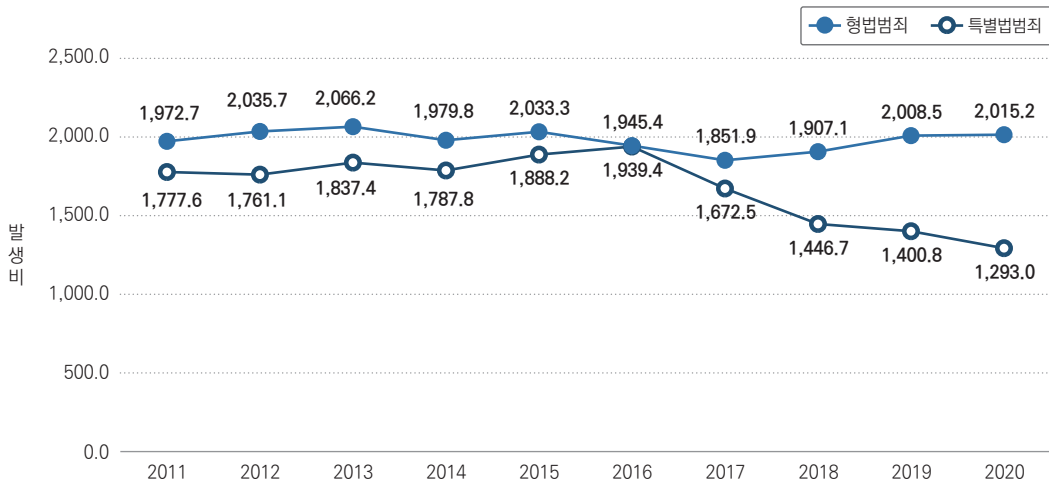


그림 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2) 주요 형법범죄⁸⁾

- 2020년 재산범죄의 발생건수는 659,058건으로, 인구 10만명당 1,271.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2019년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대비 6.5%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재산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까지 증가하다 2014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2018년 이후로는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2020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건수는 32,812건으로, 인구 10만명당 63.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19년 대비 6.4% 감소였으나, 지난 10년 동안은 9.3%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2020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건수는 210,241건으로, 인구 10만명당 405.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19년 대비 9.5%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18.2%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형법범죄의 주요 범죄군 중 재산범죄의 발생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지난 10년간 6.5%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도 소폭 증가하였다.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지난 10년간 18.2% 감소하여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에 감소하였다가 다시 2017년에 증가하였으나,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8 주요 형법범죄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부록 1> 형법범죄 분류체계 참조

표 3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1	605,549	1,193.6	-	29,382	57.9	-	251,707	496.1	-
2012	633,602	1,243.6	4.2	28,906	56.7	-2.0	253,115	496.8	0.1
2013	667,214	1,304.6	9.3	33,787	66.1	14.1	237,553	464.5	-6.4
2014	617,119	1,202.3	0.7	34,126	66.5	14.8	233,655	455.2	-8.2
2015	622,126	1,207.3	1.2	35,139	68.2	17.7	248,707	482.7	-2.7
2016	573,445	1,109.3	-7.1	32,963	63.8	10.1	251,889	487.2	-1.8
2017	542,336	1,047.4	-12.2	36,030	69.6	20.2	238,789	461.2	-7.0
2018	576,937	1,113.2	-6.7	35,272	68.1	17.5	233,392	450.3	-9.2
2019	627,430	1,210.1	1.4	35,066	67.6	16.8	232,316	448.1	-9.7
2020	659,058	1,271.6	6.5	32,812	63.3	9.3	210,241	405.6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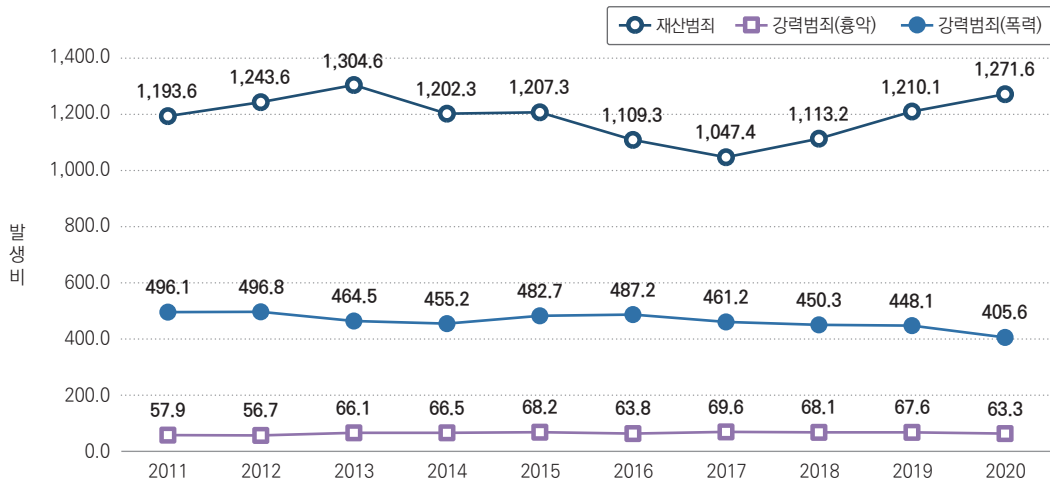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3) 주요 재산범죄

- 2020년 절도범죄의 발생건수는 173,650건, 인구 10만명당 335.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절도범죄의 발생비는 2019년 대비 7.4%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39.6%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절도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 소폭 증가 후 2020년 다시 감소하였다.
- 2020년 사기범죄의 발생건수는 354,154건, 인구 10만명당 683.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사기범죄의 발생비는 2019년 대비 13.0% 증가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53.2%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사기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4 주요 재산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절도			사기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1	281,561	555.0	-	226,360	446.2	-
2012	291,055	571.3	2.9	239,720	470.5	5.5
2013	288,757	564.6	1.7	272,664	533.2	19.5
2014	266,784	519.8	-6.3	244,008	475.4	6.5
2015	246,424	478.2	-13.8	257,620	499.9	12.1
2016	203,573	393.8	-29.0	250,600	484.8	8.6
2017	184,355	356.0	-35.8	241,642	466.7	4.6
2018	177,458	342.4	-38.3	278,566	537.5	20.5
2019	187,629	361.9	-34.8	313,593	604.8	35.6
2020	173,650	335.0	-39.6	354,154	683.3	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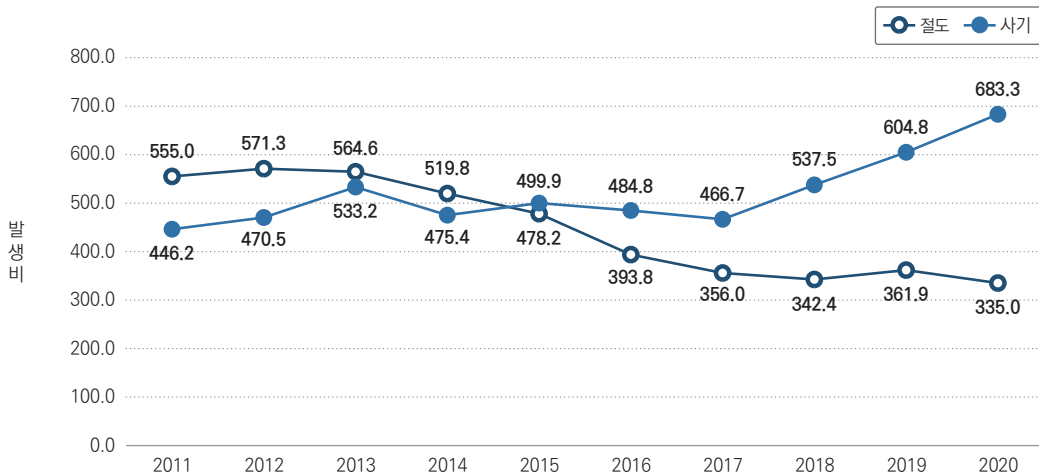


그림 4 주요 재산범죄 유형별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4) 주요 강력범죄

가) 살인범죄

- 2020년 살인범죄의 발생건수는 805건, 인구 10만명당 1.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살인범죄의 발생비는 2019년 대비 0.1%(0.08건)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35.5%(0.85건)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살인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살인범죄에는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이외에도 미수, 예비, 음모, 방조 등과 같은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살인범죄를 기수범죄와 미수 등의 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0년에는 전체 805건 중 살인기수범죄가 339건(42.1%)이며, 나머지 466건(57.9%)은 살인 미수 등의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살인 기수범죄의 발생비는 2011년 0.8건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0년 소폭 증가하여 0.7건으로 나타났다. 살인 미수 등 범죄의 발생비는 2011년부터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0.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살인 미수 등 범죄의 발생비는 살인 기수범죄의 발생비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5 살인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살인(전체)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2011	1,221	2.4	-	410	0.8	811	1.6
2012	1,022	2.0	-16.6	402	0.8	620	1.2
2013	959	1.9	-22.1	348	0.7	611	1.2
2014	938	1.8	-24.1	366	0.7	572	1.1
2015	958	1.9	-22.8	359	0.7	599	1.2
2016	948	1.8	-23.8	344	0.7	604	1.2
2017	858	1.7	-31.1	287	0.6	571	1.1
2018	849	1.6	-31.9	326	0.6	523	1.0
2019	847	1.6	-32.1	323	0.6	524	1.0
2020	805	1.6	-35.5	339	0.7	466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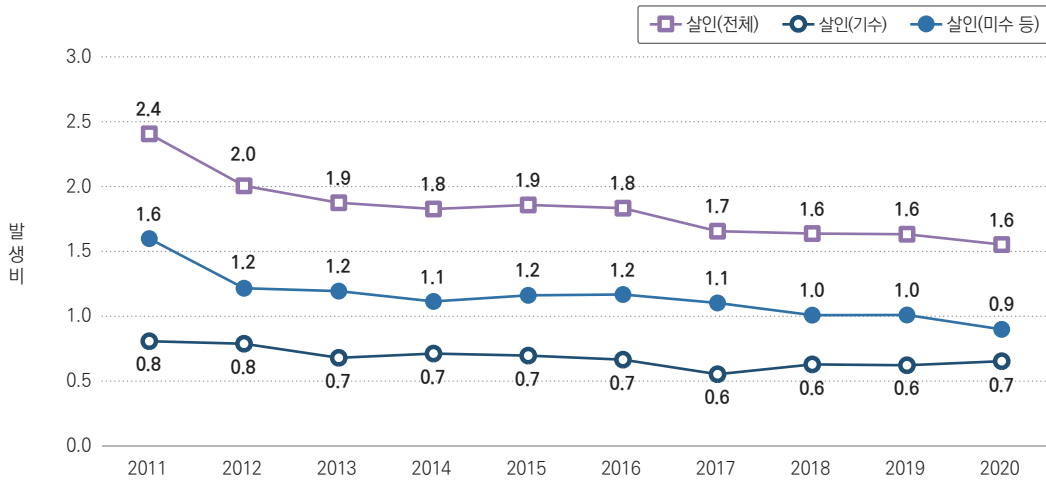


그림 5 살인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나) 강도와 방화범죄

- 2020년 강도범죄의 발생건수는 692건, 인구 10만명당 1.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강도범죄의 발생비는 2019년 대비 18.1%(0.29건)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83.2%(6.6건)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강도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10건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강도 범죄의 발생비는 형법범죄 주요 유형 중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 2020년 방화범죄의 발생건수는 1,210건, 인구 10만명당 2.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방화범죄의 발생비는 2019년 대비 10.0%(0.3건)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39.9%(1.6건)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방화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6 강도와 방화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강도			방화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1	4,021	7.9	-	1,972	3.9	-
2012	2,626	5.2	-35.0	1,882	3.7	-5.0
2013	2,001	3.9	-50.6	1,730	3.4	-13.0
2014	1,618	3.2	-60.2	1,707	3.3	-14.4
2015	1,472	2.9	-64.0	1,646	3.2	-17.8
2016	1,181	2.3	-71.2	1,477	2.9	-26.5
2017	990	1.9	-75.9	1,358	2.6	-32.5
2018	841	1.6	-79.5	1,478	2.9	-26.6
2019	845	1.6	-79.4	1,345	2.6	-33.3
2020	692	1.3	-83.2	1,210	2.3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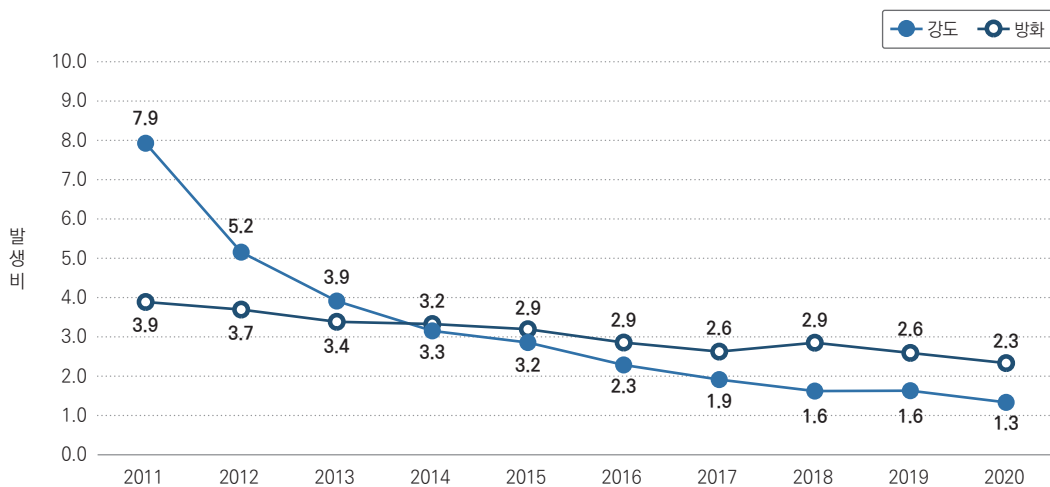


그림 6 강도와 방화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다) 성폭력범죄

- 2020년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30,105건, 인구 10만명당 58.1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2019년 대비 6.0%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에는 32.9%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성폭력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 강도, 방화범죄의 발생비는 지난 10년 대비 감소한 반면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약 1.3배 증가하였다. 강력범죄(흉악) 발생건수 중 성폭력범죄의 비중은 2011년 75.4%에서 2020년 91.7%로 16.3%p 높아졌다.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 증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7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1	22,168	43.7	-
2012	23,376	45.9	5.0
2013	29,097	56.9	30.2
2014	29,863	58.2	33.2
2015	31,063	60.3	38.0
2016	29,357	56.8	30.0
2017	32,824	63.4	45.1
2018	32,104	61.9	41.8
2019	32,029	61.8	41.4
2020	30,105	58.1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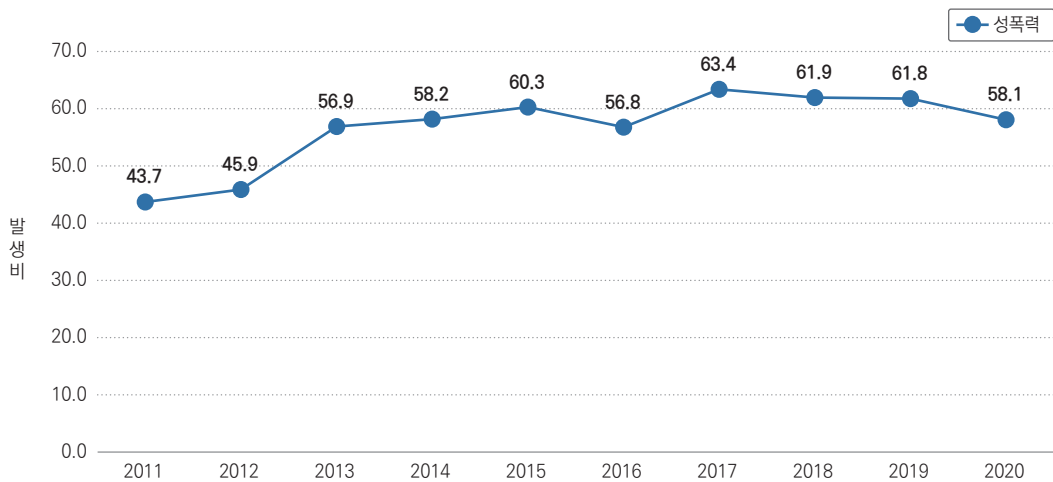


그림 7 성폭력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 성폭력범죄를 12개의 하위 유형으로 세분하여 발생건수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강간은 2011년 20.0%에서 대체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19.3%를 보였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의 구성비는 2011년 38.5%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48.1%로,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강간 등 상해/치상은 2011년 6.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1.9%로 나타났다.

-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구성비는 2011년 7.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5년 24.9%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성폭력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강간이나 강간등 상해/치상 등과 같은 심각한 유형의 범죄보다는 강제추행범죄와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가 증가한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피해신고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표 8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건, %)

연도	강간 ⁹	강제추행	강간등 ¹⁰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간 등 ¹¹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추행	허위영상물 편집·배포등	촬영물등이용 협박·강요등	계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	911 (4.1)	1,750 (7.9)	-	-	22,168
2012	4,349 (18.6)	10,949 (46.8)	1,937 (8.3)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917 (3.9)	1,332 (5.7)	-	-	23,376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1)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	-	29,097
2014	5,092 (17.1)	12,849 (43.0)	622 (2.1)	8 (0.0)	872 (2.9)	123 (0.4)	6,735 (22.6)	470 (1.6)	1,254 (4.2)	1,838 (6.2)	-	-	29,863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	-	31,063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	-	29,357
2017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6,615 (20.2)	422 (1.3)	1,265 (3.9)	2,085 (6.4)	-	-	32,824
2018	5,826 (18.1)	15,672 (48.8)	182 (0.6)	8 (0.0)	655 (2.0)	43 (0.1)	6,085 (19.0)	646 (2.0)	1,378 (4.3)	1,609 (5.0)	-	-	32,104
2019	5,845 (18.2)	15,766 (49.2)	157 (0.5)	2 (0.0)	653 (2.0)	42 (0.1)	5,893 (18.4)	685 (2.1)	1,454 (4.5)	1,532 (4.8)	-	-	32,029
2020	5,825 (19.3)	14,486 (48.1)	102 (0.3)	9 (0.0)	574 (1.9)	274 (0.9)	5,005 (16.6)	697 (2.3)	2,070 (6.9)	906 (3.0)	32 (0.1)	125 (0.4)	30,105

9 강간에는 간음이 포함

10 강간등은 범죄통계 원표상 죄명코드로 강간과 강제추행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11 『2021 범죄분석』에서 성폭력범죄 내에서 분류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특수강간강간 등'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일부 죄명들이 포함됨에 따라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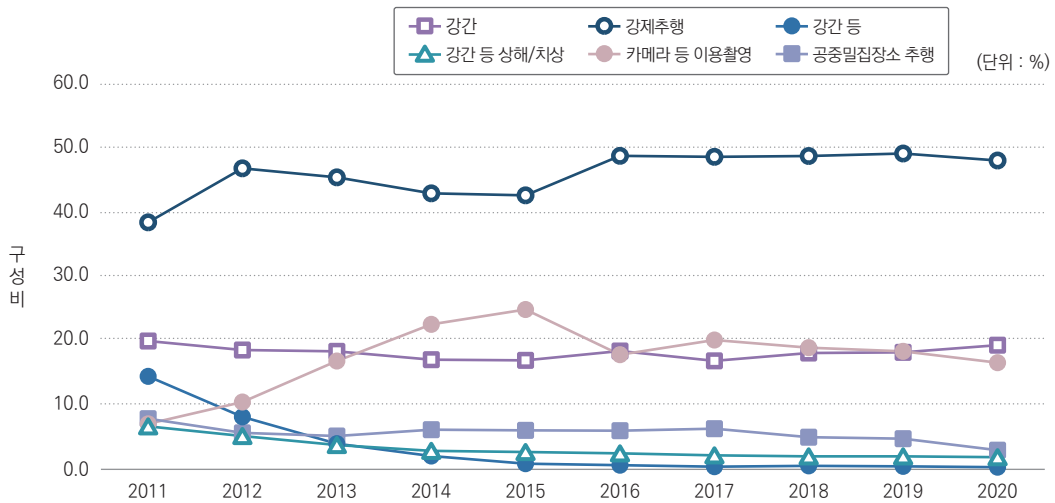


그림 8 성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구성비 추이(2011년~2020년)

라) 폭행/상해범죄¹²

- 2020년 폭행/상해범죄의 발생건수는 180,604건, 인구 10만명당 348.5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폭행/상해범죄의 발생비는 2019년 대비 11.0%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23.9%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폭행/상해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9 폭행/상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1	232,229	457.7	-
2012	230,635	452.7	-1.1
2013	219,805	429.8	-6.1
2014	214,605	418.1	-8.7
2015	226,543	439.6	-4.0
2016	228,710	442.4	-3.3
2017	215,717	416.6	-9.0
2018	208,935	403.1	-11.9
2019	203,074	391.7	-14.4
2020	180,604	348.5	-23.9

12 폭행/상해범죄는 형법범죄 중 폭행과 상해범죄 이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중 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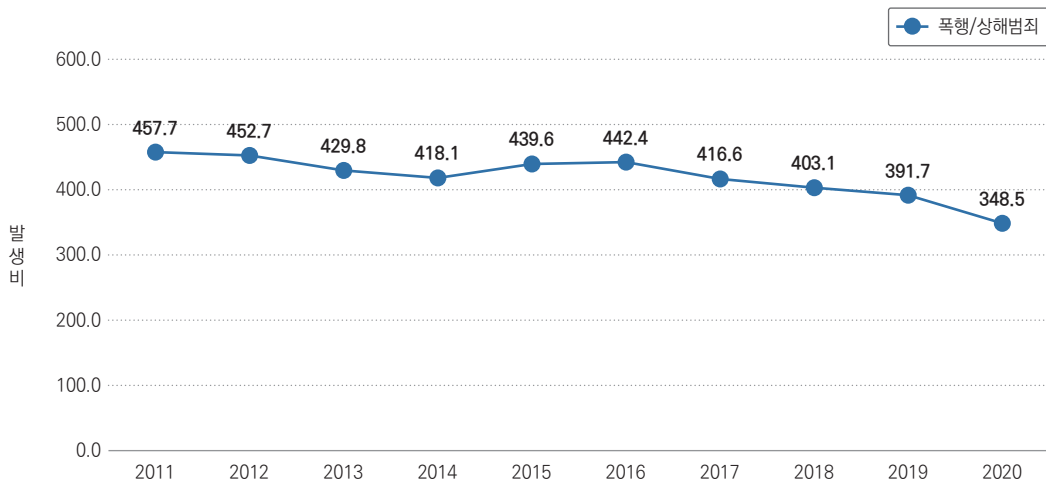


그림 9 폭행/상해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5) 교통범죄¹³

- 2020년 교통범죄의 발생건수는 377,417건, 인구 10만명당 728.2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19년 대비 7.0%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31.5%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교통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완만히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1년 전체범죄 발생건수(1,902,720건)에서 교통범죄(539,029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28.3%였으나, 2020년에는 22.0%로 6.3%p 감소하였다. 최근 들어 교통범죄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범죄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교통범죄를 교통사고 범죄와 기타 교통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통사고 범죄의 발생비는 2011년 490.0건에서 2020년 410.2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16.3% 감소하였다. 기타 교통범죄는 2011년 572.5건에서 2020년 318.0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44.4% 감소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교통범죄 발생비의 감소는 주로 기타 교통범죄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교통범죄 집계기준에 대해서는 [각주 4] 참조

표 10 교통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교통범죄(전체)			교통사고 범죄		기타 교통범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2011	539,029	1,062.5	-	248,595	490.0	290,434	572.5
2012	544,201	1,068.1	0.5	283,138	555.7	261,063	512.4
2013	574,398	1,123.2	5.7	284,012	555.3	290,386	567.8
2014	574,203	1,118.7	5.3	298,867	582.3	275,336	536.4
2015	597,473	1,159.5	9.1	320,249	621.5	277,224	538.0
2016	600,970	1,162.5	9.4	307,104	594.1	293,866	568.4
2017	529,950	1,023.5	-3.7	252,383	487.4	277,567	536.1
2018	433,350	836.2	-21.3	223,608	431.5	209,742	404.7
2019	406,023	783.1	-26.3	226,254	436.4	179,769	346.7
2020	377,417	728.2	-31.5	212,593	410.2	164,824	3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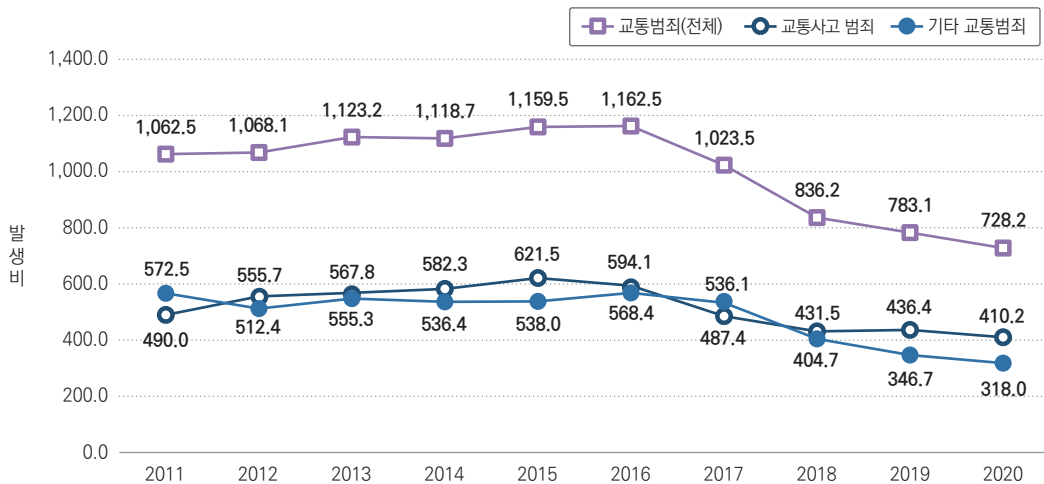


그림 10 교통범죄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다. 연령별 범죄발생비 추이

1) 전체범죄

- 전체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자의 연령별 발생비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51세~60세 범죄자의 발생비가 인구 10만명당 4,413.4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41세~50세(4,089.1건), 31세~40세(3,788.8건), 19세~30세(3,553.9건), 61세 이상(2,218.9건), 18세 이하(785.9건)의 순이었다.
- 전체범죄의 연령별 발생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소년범죄자(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범죄자의 발생비는 감소한 반면에, 51세~60세, 61세 이상 범죄자의 발생비는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41세~50세의 발생비가 28.1%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61세 이상의 노인범죄자의 발생비가 59.7%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표 11 전체범죄 범죄자 연령별 발생비¹⁴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발생비)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2011	940.9	3,827.9	4,638.8	5,686.7	4,249.3	1,389.1
2012	1,006.9	3,905.9	4,724.4	5,834.9	5,065.7	1,733.5
2013	875.1	4,041.5	4,848.2	5,786.6	5,075.5	1,771.5
2014	786.0	3,826.6	4,761.2	5,631.3	5,235.0	1,939.1
2015	737.4	4,043.1	4,816.7	5,560.1	5,315.3	2,073.3
2016	810.6	4,242.9	5,126.8	5,637.6	5,473.5	2,215.4
2017	799.5	3,949.2	4,588.8	5,023.8	5,059.5	2,173.5
2018	750.3	3,639.9	4,193.2	4,607.0	4,813.3	2,183.9
2019	780.5	3,681.2	4,138.8	4,588.1	4,818.9	2,340.2
2020	785.9	3,553.9	3,788.8	4,089.1	4,413.4	2,218.9

1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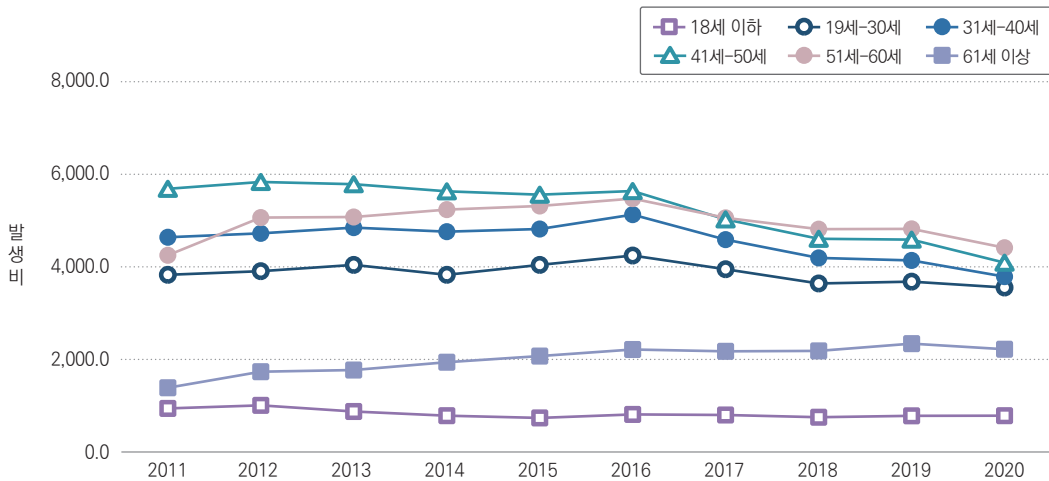


그림 11 전체범죄의 범죄자 연령별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2) 소년범죄

- 소년 재산범죄¹⁵의 발생비는 2011년 소년인구 10만명당 403.0건에서 2012년 442.4건으로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2016년을 제외하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9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년 재산범죄 발생비는 12.7% 감소하였다.
- 소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11년 소년인구 10만명당 38.1건에서 2015년 28.2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부터 매년 증가하다 2020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38.2건 발생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0.3% 증가하였다.
- 소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11년 소년인구 10만명당 265.2건에서 2012년 310.0건으로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3년간 감소하였고 다시 2년간은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179.7건 발생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32.2% 감소하였다.
- 소년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11년 소년인구 10만명당 136.3건에서 2015년 89.4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부터 증감을 보인다 2020년에는 100.7건이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간 소년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6.1% 감소하였다.

15 「2019 범죄분석」 이전의 소년범죄자는 10세~18세를 의미하였으나 「2019 범죄분석」부터 연령집계 시 14세 미만 피의자를 제외하고 작성함에 따라 제시된 2018년부터 소년 재산범죄는 소년범죄자(14세~18세)가 범한 재산범죄를 의미, 이하 소년 강력범죄(흉악/폭력), 소년 교통범죄도 동일

- 4가지 범죄군 중에서 소년범죄 발생비가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이며,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2020년 강력범죄(흉악)의 소년범죄 발생비는 다른 범죄군에 비하여 가장 낮았지만, 다른 범죄군은 지난 10년간 증감률이 감소한 반면 강력범죄(흉악)는 0.3% 증가하였다.

표 12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¹⁶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2011	403.0	-	38.1	-	265.2	-	136.3	-
2012	442.4	9.8	34.7	-8.9	310.0	16.9	115.1	-15.5
2013	430.9	6.9	34.4	-9.7	215.4	-18.8	96.2	-29.4
2014	367.4	-8.8	32.0	-16.0	196.0	-26.1	93.7	-31.2
2015	332.9	-17.4	28.2	-26.1	181.4	-31.6	89.4	-34.4
2016	352.9	-12.4	35.7	-6.4	207.7	-21.7	99.4	-27.1
2017	319.3	-20.8	38.1	-0.1	231.2	-12.8	105.8	-22.4
2018	300.6	-25.4	39.8	4.5	224.0	-15.5	86.7	-36.4
2019	327.6	-18.7	43.2	13.4	219.4	-17.3	88.0	-35.5
2020	351.7	-12.7	38.2	0.3	179.7	-32.2	100.7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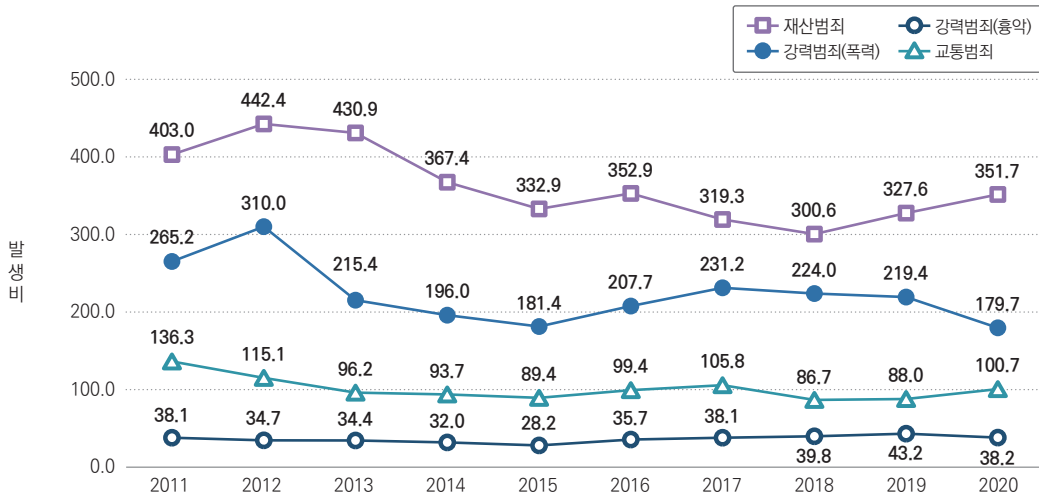


그림 12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16 소년범죄 발생비는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18세 이하 인원수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임을 유의

3) 고령자범죄

- 고령자¹⁷ 재산범죄 발생비는 2011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200.5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489.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재산범죄 발생비는 144.3% 증가하였다.
- 고령자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11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10.7건에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6.2건 발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144.4% 증가하였다.
- 고령자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11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175.7건에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50.2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42.5% 증가하였다.
- 고령자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11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295.0건에서 증가하여 2016년에는 534.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481.3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63.1% 증가하였다.
- 4가지 범죄군 중에서 기존에는 교통범죄의 발생비가 가장 높았으나 2020년에는 재산범죄가 교통범죄를 추월하며 가장 높은 발생비를 보였고,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강력범죄(흉악)은 네 가지 범죄군 중에서 발생비가 가장 낮았지만 지난 10년간 증가율은 144.4%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범죄군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범죄의 증가율이 최소 40% 수준 이상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 최근 고령자 인구가 꾸준히 증가(2011년 5,700,972명에서 2020년 8,496,077명으로 49.0%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범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고,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이 증가 원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17 65세 이상 범죄자

표 13 주요 범죄군별 고령자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2011	200.5	-	10.7	-	175.7	-	295.0	-
2012	257.8	28.6	13.4	24.8	192.1	9.3	323.0	9.5
2013	279.0	39.2	17.0	58.3	192.5	9.6	365.6	23.9
2014	315.0	57.1	19.5	81.9	216.9	23.5	444.1	50.6
2015	340.0	69.6	21.6	101.2	240.3	36.8	507.2	71.9
2016	377.4	88.3	23.4	118.1	249.9	42.3	534.0	81.0
2017	395.4	97.2	27.0	151.1	241.8	37.7	502.6	70.4
2018	429.0	114.0	26.5	146.9	253.2	44.1	488.3	65.5
2019	479.9	139.4	29.3	172.6	263.8	50.2	512.5	73.7
2020	489.8	144.3	26.2	144.4	250.2	42.5	481.3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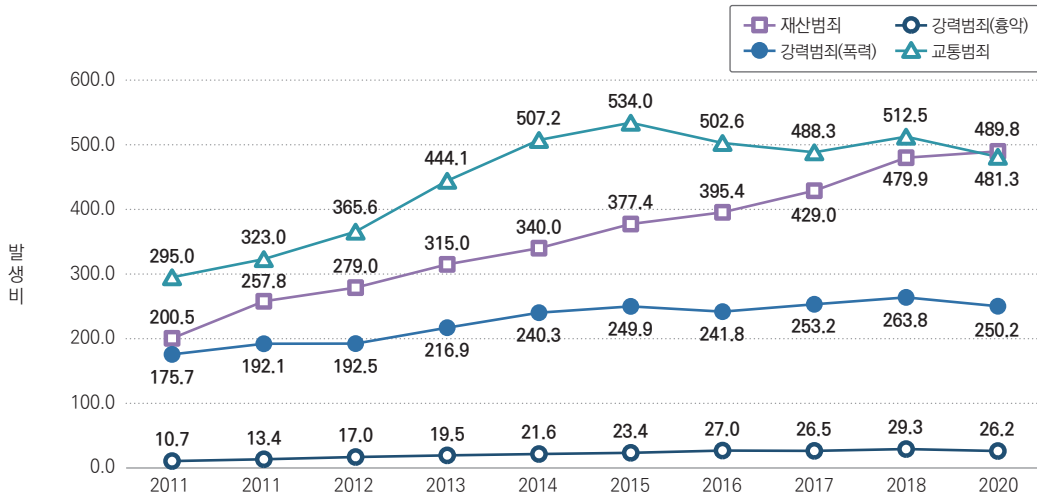


그림 13 주요 범죄군별 고령자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라. 지역별¹⁸ 범죄발생비 추이

- 2020년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인구 10만명당 4,342.5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산광역시 3,764.0건, 경상남도 3,694.6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발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인구 10만명당 2,192.8건이었으며, 그 다음은 전라북도(3,115.7건), 충청남도(3,169.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범죄에 대한 발생비는 11.8% 감소하였으며, 모든 시·도별 발생비 또한 10년 전 대비하여 감소하였다.

표 14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발생비)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특별시	3,763.0	3,764.9	3,874.2	3,853.7	3,856.3	3,753.3	3,575.7	3,494.8	3,499.8	3,292.4
부산광역시	4,046.3	4,131.0	4,273.2	4,203.7	4,453.1	4,117.1	3,750.0	3,667.9	3,770.7	3,764.0
대구광역시	4,142.4	4,191.0	4,119.4	4,149.9	4,330.2	3,771.8	3,324.2	3,228.9	3,400.5	3,274.2
인천광역시	3,421.0	3,664.4	3,744.9	3,578.2	3,767.5	3,723.3	3,443.3	3,201.9	3,425.4	3,273.7
광주광역시	4,735.1	4,933.8	4,959.0	4,823.0	4,560.3	4,107.8	3,731.9	3,510.0	3,627.1	3,439.1
대전광역시	3,372.4	3,166.9	3,348.7	3,294.5	3,436.5	3,413.7	3,352.2	3,234.0	3,249.7	3,207.9
울산광역시	3,693.4	3,751.7	4,091.6	3,900.1	2,915.4	2,526.6	2,279.4	2,191.3	2,248.6	2,192.8
경기도	3,429.3	3,500.4	3,583.6	3,584.0	3,776.6	4,113.3	3,572.3	3,287.8	3,274.2	3,198.7
강원도	4,027.3	4,322.5	4,238.5	3,806.9	4,081.5	4,177.2	3,799.7	3,402.0	3,457.0	3,340.9
충청북도	3,380.5	3,245.6	3,299.2	3,195.2	3,679.9	3,880.2	3,571.4	3,355.3	3,362.5	3,226.1
충청남도	3,458.5	3,837.9	3,940.8	3,911.8	3,753.7	3,542.7	3,287.4	3,308.3	3,251.1	3,169.3
전라북도	3,703.2	3,892.4	3,787.6	3,349.8	3,513.2	3,346.5	3,086.3	3,067.9	3,189.4	3,115.7
전라남도	4,331.1	4,241.6	4,538.8	3,771.1	4,174.3	3,926.3	3,407.4	3,501.5	3,669.1	3,642.8
경상북도	3,664.6	3,745.9	3,922.1	3,536.5	3,691.0	3,562.8	3,308.3	3,189.3	3,304.7	3,174.6
경상남도	4,084.2	3,768.7	3,923.4	3,641.1	4,307.5	4,246.8	3,765.6	3,474.9	3,687.4	3,694.6
제주도	4,892.9	4,983.6	5,975.0	5,307.0	5,739.2	5,829.5	5,201.3	4,512.4	4,220.3	4,342.5

18 지역은 16개 시도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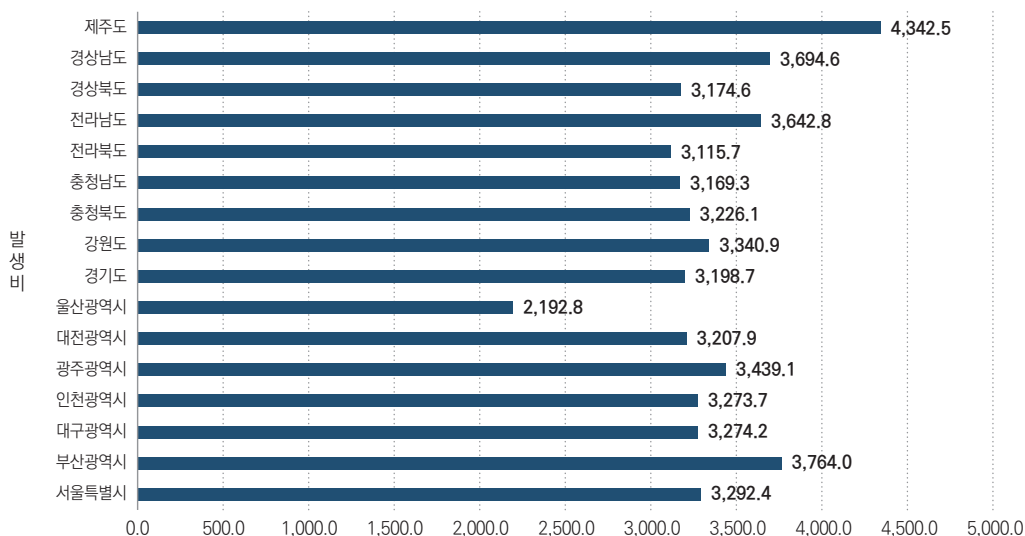


그림 14 2020년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 2020년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인구 10만명당 2,791.0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산광역시 2,473.3건, 경상남도 2,238.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발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인구 10만명당 1,199.8건이며, 그 다음은 충청남도(1,782.4건), 전라북도(1,800.6건) 등의 순이었다.
- 지난 10년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형법범죄의 발생비가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는 감소하였다.
- 제주도는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발생비 모두 16개 시·도지역 중에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울산광역시는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발생비 모두 16개 시·도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표 15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발생비)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특별시	2,214.3	2,317.6	2,332.5	2,347.2	2,367.3	2,280.3	2,173.5	2,186.3	2,265.1	2,193.1
부산광역시	2,354.1	2,387.1	2,476.3	2,309.0	2,326.4	2,199.6	2,152.9	2,205.7	2,373.5	2,473.3
대구광역시	2,046.4	2,114.2	2,082.3	1,964.5	2,041.3	1,827.2	1,738.0	1,799.3	2,006.5	2,016.8
인천광역시	1,658.5	1,775.6	1,885.4	1,775.3	1,905.7	1,953.2	1,872.6	2,000.9	2,145.6	2,078.0
광주광역시	2,522.9	2,589.5	2,533.4	2,407.6	2,255.5	1,943.6	1,801.4	1,926.9	2,080.1	2,012.2
대전광역시	2,024.9	2,035.1	2,100.7	2,025.8	2,120.3	2,000.8	1,917.1	2,008.9	2,051.4	2,102.0
울산광역시	1,896.4	1,925.4	2,031.1	1,971.5	1,264.5	1,184.8	1,115.8	1,158.0	1,144.0	1,199.8
경기도	1,793.7	1,853.4	1,852.7	1,824.6	1,911.9	1,840.3	1,751.4	1,803.7	1,882.2	1,904.0
강원도	2,061.6	2,135.9	2,059.9	1,799.0	1,860.0	1,890.9	1,824.5	1,758.3	1,870.2	1,821.2
충청북도	1,841.1	1,666.4	1,693.7	1,638.3	1,852.5	1,800.9	1,732.5	1,791.2	1,901.1	1,872.2
충청남도	1,747.3	2,012.1	2,026.0	1,953.2	1,810.2	1,712.0	1,660.0	1,757.6	1,794.9	1,782.4
전라북도	1,808.2	1,847.2	1,943.0	1,654.8	1,826.3	1,702.0	1,566.0	1,678.7	1,736.3	1,800.6
전라남도	1,839.5	1,912.3	1,964.5	1,726.5	1,819.3	1,706.2	1,550.9	1,718.8	1,775.3	1,805.1
경상북도	1,668.3	1,714.3	1,804.9	1,629.2	1,669.6	1,661.7	1,578.9	1,614.0	1,818.5	1,804.9
경상남도	1,853.3	1,882.1	1,921.8	1,819.9	2,129.3	2,006.1	1,906.8	1,939.1	2,099.4	2,238.1
제주도	2,888.3	2,766.3	3,044.4	2,783.4	2,772.9	2,776.4	2,573.2	2,662.5	2,598.4	2,7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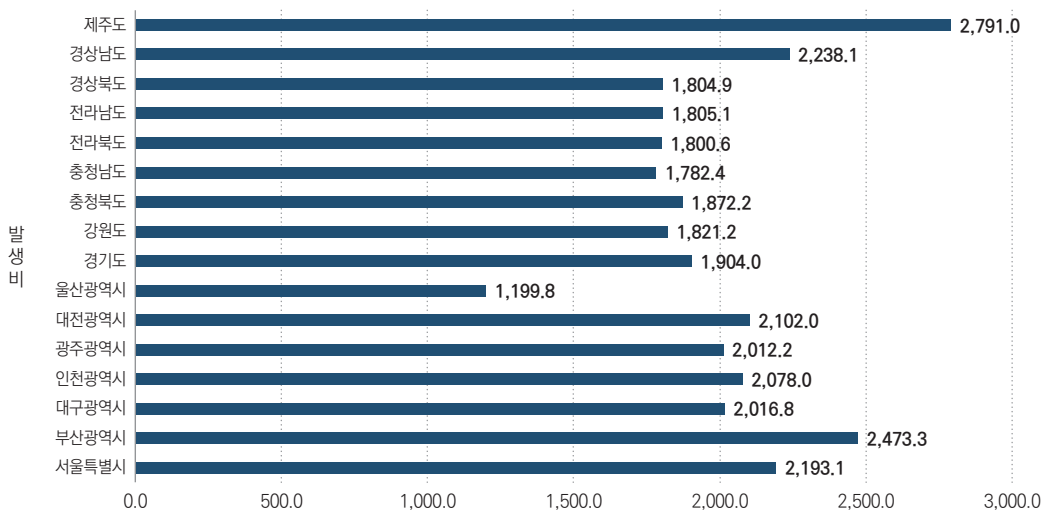


그림 15 2020년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2. 범죄자 특성 추이

가. 성(性)

- 전체범죄의 경우 범죄자 중 여성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7.7%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20.7%로 지난 10년 동안 3.0%p 증가하였다.
- 재산범죄의 경우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2011년 20.7%에서 2020년에는 22.4%로 지난 10년 동안 1.7%p 증가하였다.
- 강력범죄(흉악)의 경우에는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2011년 4.3%에서 2020년에는 4.9%로 지난 10년 동안 0.6%p 증가하였다.
- 강력범죄(폭력)의 경우에는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2011년 15.6%에서 2020년에는 17.9%로 지난 10년 동안 2.3%p 증가하였다.
-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2011년 12.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7.2%로 지난 10년 동안 4.3%p 증가하였다.
- 4가지 범죄군에서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였으며,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모두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주요 범죄군별 여성범죄자 구성비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

연도	전체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2011	17.7	20.7	4.3	15.6	12.9
2012	18.0	20.4	3.9	16.2	13.3
2013	17.6	20.0	3.5	15.7	13.5
2014	18.2	20.4	3.3	15.5	14.4
2015	18.4	20.6	3.4	16.0	14.8
2016	18.2	21.1	3.4	16.3	14.8
2017	18.8	21.3	3.6	16.7	15.0
2018	19.7	22.3	4.1	17.1	16.1
2019	20.7	22.8	4.5	18.1	17.5
2020	20.7	22.4	4.9	17.9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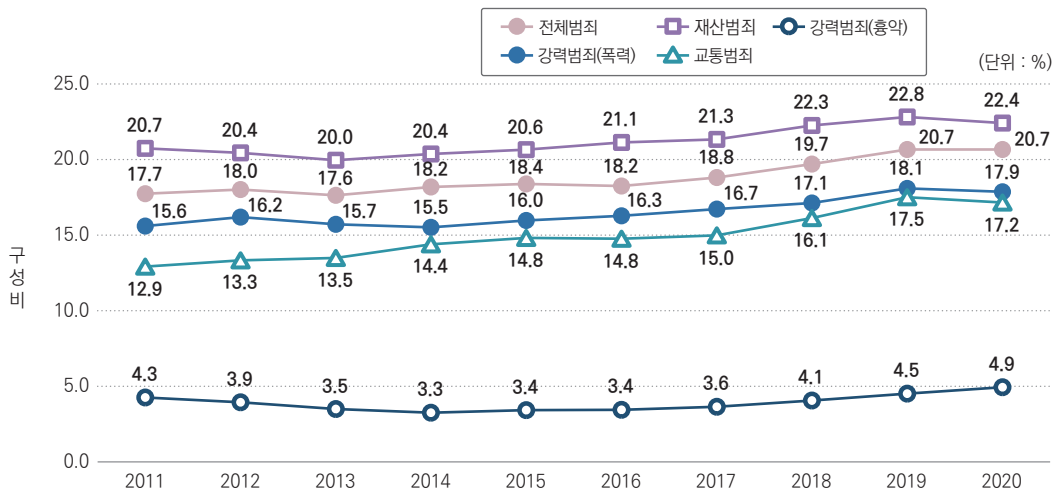


그림 16 주요 범죄군별 여성범죄자 구성비 추이(2011년~2020년)

나. 연령

- 2020년 전체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세~60세가 2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41세~50세(21.4%), 19세~30세(17.8%), 31세~40세(16.8%), 61세 이상(16.0%), 18세 이하(4.0%)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61세 이상, 51세~6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9%p, 6.4%p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7.9%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표 17 전체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명, %)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11	100,032 (5.8)	317,562 (18.6)	387,916 (22.7)	501,839 (29.3)	299,009 (17.5)	105,329 (6.2)	1,711,687
2012	104,780 (5.7)	318,770 (17.3)	389,563 (21.1)	515,006 (27.9)	379,735 (20.6)	135,435 (7.3)	1,843,289
2013	88,731 (4.8)	325,454 (17.5)	395,825 (21.3)	510,441 (27.4)	393,956 (21.2)	145,290 (7.8)	1,859,697
2014	77,594 (4.2)	306,597 (16.6)	381,442 (20.6)	501,527 (27.1)	418,590 (22.6)	165,400 (8.9)	1,851,150
2015	71,035 (3.8)	324,976 (17.2)	376,218 (19.9)	496,000 (26.3)	435,511 (23.1)	185,219 (9.8)	1,888,959
2016	76,000 (3.9)	341,896 (17.3)	393,251 (19.9)	498,953 (25.3)	454,454 (23.0)	209,101 (10.6)	1,973,655
2017	72,759 (4.0)	318,645 (17.5)	345,590 (19.0)	441,295 (24.3)	424,809 (23.4)	215,139 (11.8)	1,818,237
2018	66,142 (3.9)	293,734 (17.2)	308,902 (18.1)	400,370 (23.5)	407,348 (23.9)	227,590 (13.4)	1,704,086
2019	66,247 (3.8)	297,445 (17.3)	300,789 (17.5)	388,899 (22.6)	413,869 (24.0)	256,250 (14.9)	1,723,499
2020	64,480 (4.0)	284,508 (17.8)	267,845 (16.8)	342,322 (21.4)	381,330 (23.9)	256,000 (16.0)	1,596,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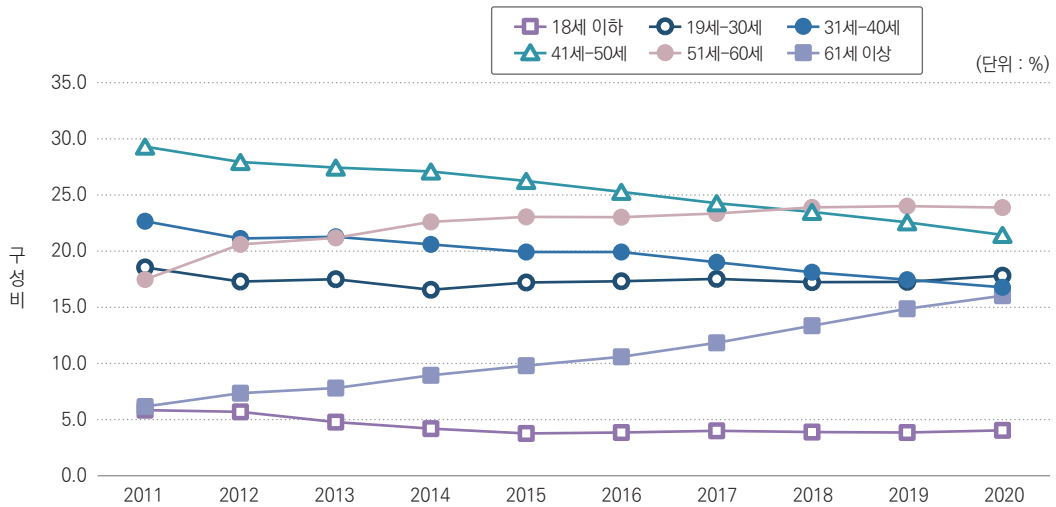


그림 17 전체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1년~2020년)

- 2020년 재산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세~60세가 2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41세~50세(20.1%), 19세~30세(19.5%), 61세 이상(16.1%), 31세~40세(15.0%), 18세 이하(6.6%)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61세 이상, 51세~60세, 19세~3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0%p, 5.8%p, 3.2%p 증가하였다. 반면에, 18세 이하, 31세~40세, 41세~5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7.5%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 지난 10년간 추이에 따르면, 51세~6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재산범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18세 이하, 31세~40세, 41세~50세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8 재산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명, %)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11	42,851 (12.7)	54,825 (16.3)	68,597 (20.4)	92,766 (27.5)	57,361 (17.0)	20,567 (6.1)	336,967
2012	46,039 (11.4)	62,704 (15.6)	77,294 (19.2)	107,128 (26.6)	81,627 (20.2)	28,387 (7.0)	403,179
2013	43,698 (10.3)	71,819 (16.9)	81,606 (19.2)	109,350 (25.8)	86,049 (20.3)	31,452 (7.4)	423,974
2014	36,271 (9.0)	64,882 (16.1)	74,472 (18.4)	104,596 (25.9)	88,621 (21.9)	35,211 (8.7)	404,053
2015	32,068 (7.7)	74,537 (17.9)	75,125 (18.0)	103,263 (24.8)	92,454 (22.2)	39,168 (9.4)	416,615
2016	33,088 (7.9)	73,990 (17.6)	73,600 (17.5)	99,612 (23.7)	94,609 (22.5)	45,675 (10.9)	420,574
2017	29,056 (7.2)	72,242 (17.8)	68,547 (16.9)	93,332 (23.1)	92,089 (22.8)	49,502 (12.2)	404,768
2018	26,497 (6.4)	74,295 (17.8)	68,247 (16.4)	94,514 (22.7)	96,872 (23.2)	56,469 (13.5)	416,894
2019	27,809 (6.3)	78,871 (17.7)	70,193 (15.8)	96,831 (21.8)	104,407 (23.5)	66,384 (14.9)	444,495
2020	28,855 (6.6)	84,577 (19.5)	65,093 (15.0)	87,168 (20.1)	98,996 (22.8)	69,804 (16.1)	434,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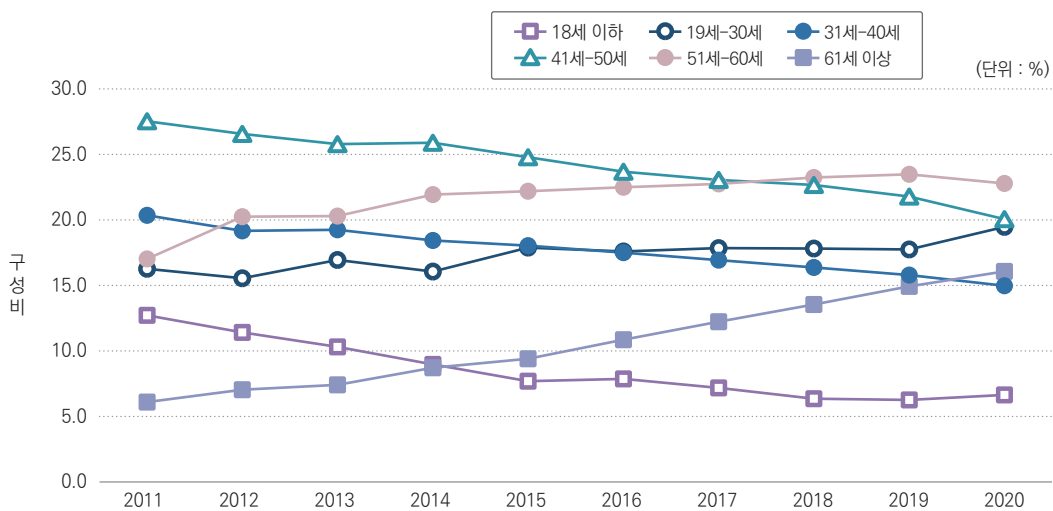


그림 18 재산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1년~2020년)

- 2020년 강력범죄(흉악)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9세~30세가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31세~40세(18.8%), 41세~50세(16.7%), 51세~60세(15.6%), 61세 이상(10.7%), 18세 이하(9.0%)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19세~30세, 51세~6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에, 18세 이하, 31세~40세, 41세~5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표 19 강력범죄(흉악)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명, %)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11	4,049 (15.9)	6,665 (26.2)	5,561 (21.9)	5,318 (20.9)	2,713 (10.7)	1,098 (4.3)	25,404
2012	3,609 (13.5)	7,282 (27.3)	5,720 (21.5)	5,378 (20.2)	3,316 (12.4)	1,339 (5.0)	26,644
2013	3,488 (11.8)	7,901 (26.8)	6,351 (21.6)	5,984 (20.3)	3,967 (13.5)	1,775 (6.0)	29,466
2014	3,158 (10.6)	7,875 (26.5)	6,151 (20.7)	6,230 (21.0)	4,288 (14.4)	1,993 (6.7)	29,695
2015	2,713 (8.7)	8,414 (27.0)	6,689 (21.4)	6,382 (20.5)	4,671 (15.0)	2,321 (7.4)	31,190
2016	3,343 (10.1)	8,825 (26.6)	6,812 (20.5)	6,456 (19.4)	5,117 (15.4)	2,679 (8.1)	33,232
2017	3,463 (9.5)	10,157 (28.0)	7,281 (20.1)	6,704 (18.5)	5,516 (15.2)	3,169 (8.7)	36,290
2018	3,509 (9.7)	10,275 (28.5)	6,769 (18.8)	6,516 (18.1)	5,660 (15.7)	3,281 (9.1)	36,010
2019	3,665 (9.9)	10,713 (29.0)	6,888 (18.7)	6,255 (16.9)	5,655 (15.3)	3,750 (10.2)	36,926
2020	3,134 (9.0)	10,183 (29.2)	6,560 (18.8)	5,836 (16.7)	5,431 (15.6)	3,723 (10.7)	34,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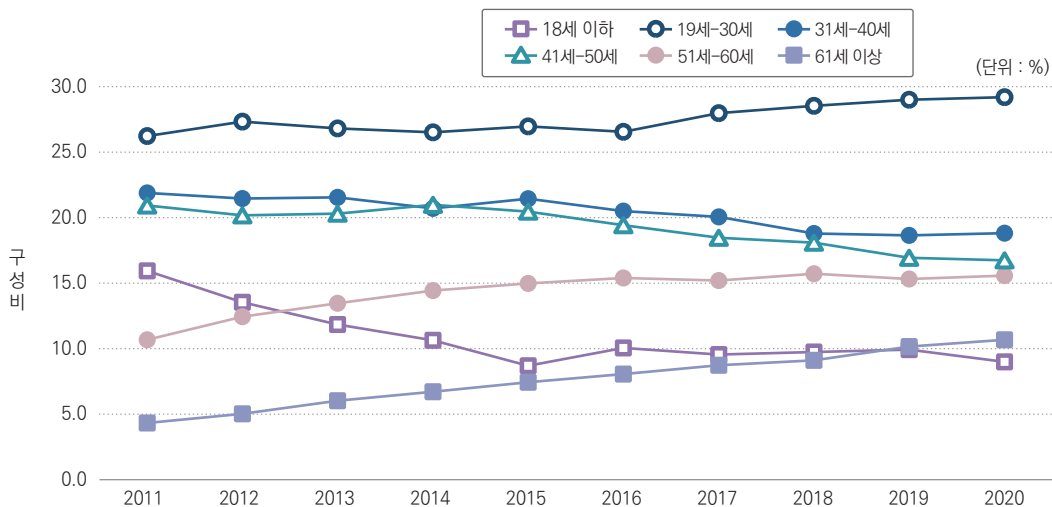


그림 19 강력범죄(흉악)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1년~2020년)

- 2020년 강력범죄(폭력)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세~60세가 2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41세~50세(21.5%), 19세~30세(20.5%), 31세~40세(17.2%), 61세 이상(13.4%), 18세 이하(5.3%)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61세 이상, 51세~6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1%p, 6.0%p 증가하였다. 반면에,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6.3%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 10년간 추이에 따르면, 51세~6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31세~40세, 41세~5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20 강력범죄(폭력)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명, %)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11	28,193 (8.2)	73,619 (21.4)	73,434 (21.3)	95,636 (27.8)	55,469 (16.1)	18,227 (5.3)	344,578
2012	32,261 (8.7)	78,448 (21.1)	74,378 (20.0)	96,121 (25.9)	68,069 (18.3)	22,213 (6.0)	371,490
2013	21,840 (6.4)	70,835 (20.8)	70,049 (20.5)	89,180 (26.1)	66,890 (19.6)	22,400 (6.6)	341,194
2014	19,352 (5.9)	66,930 (20.3)	65,792 (20.0)	83,952 (25.5)	68,775 (20.9)	24,581 (7.5)	329,382
2015	17,473 (5.1)	69,846 (20.5)	66,854 (19.7)	85,878 (25.2)	72,091 (21.2)	27,975 (8.2)	340,117
2016	19,476 (5.6)	71,847 (20.7)	67,700 (19.5)	83,495 (24.1)	73,172 (21.1)	31,172 (9.0)	346,862
2017	21,043 (6.4)	71,206 (21.6)	62,248 (18.9)	75,518 (22.9)	68,168 (20.7)	31,724 (9.6)	329,907
2018	19,742 (6.3)	65,263 (20.7)	57,691 (18.3)	70,394 (22.4)	67,275 (21.4)	34,408 (10.9)	314,773
2019	18,622 (6.0)	63,706 (20.5)	55,356 (17.9)	68,274 (22.0)	66,364 (21.4)	37,790 (12.2)	310,112
2020	14,744 (5.3)	56,781 (20.5)	47,761 (17.2)	59,608 (21.5)	61,219 (22.1)	37,248 (13.4)	277,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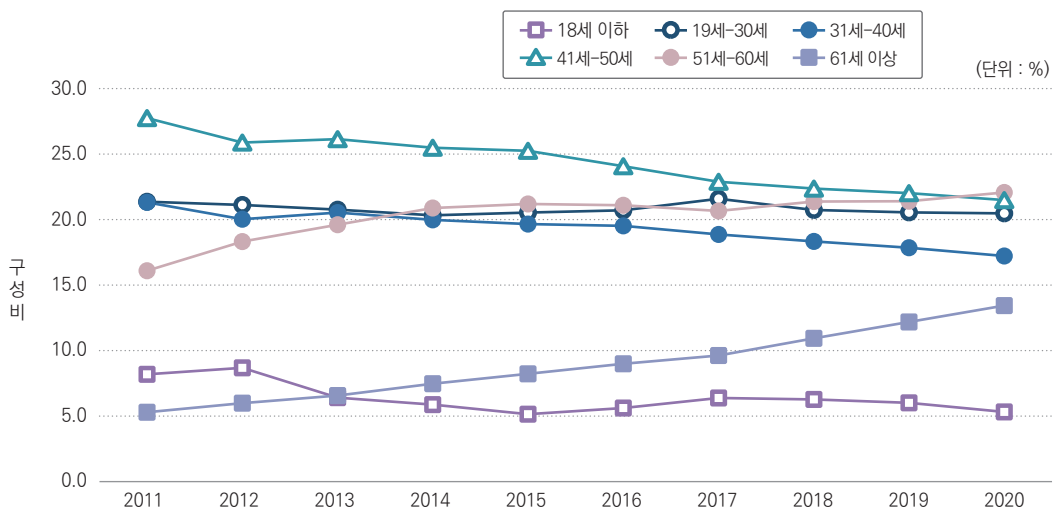


그림 20 강력범죄(폭력)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1년~2020년)

- 2020년 교통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세~60세가 2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41세~50세(20.8%), 31세~40세(18.3%), 61세 이상(17.9%), 19세~30세(17.5%), 18세 이하(2.2%)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61세 이상, 51세~6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8%p, 6.8%p 증가하였다. 반면에,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8.2%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 지난 10년간 4가지 범죄군 모두 51세~60세와 61세 이상 연령층의 구성비가 증가한 반면, 18세 이하, 31세~40세, 41세~50세의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표 21 교통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명, %)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11	14,494 (2.8)	103,142 (20.0)	131,758 (25.5)	149,589 (29.0)	85,331 (16.5)	31,671 (6.1)	515,985
2012	11,981 (2.3)	93,012 (18.1)	125,262 (24.4)	144,145 (28.1)	100,176 (19.5)	38,643 (7.5)	513,219
2013	9,754 (1.8)	94,387 (17.6)	133,254 (24.8)	149,459 (27.8)	107,361 (20.0)	43,322 (8.1)	537,537
2014	9,254 (1.7)	89,780 (16.8)	126,995 (23.8)	144,582 (27.1)	113,215 (21.2)	49,726 (9.3)	533,552
2015	8,610 (1.6)	91,578 (16.7)	124,187 (22.6)	144,868 (26.4)	121,835 (22.2)	58,218 (10.6)	549,296
2016	9,319 (1.7)	93,396 (16.8)	123,352 (22.2)	141,683 (25.5)	123,346 (22.2)	64,232 (11.6)	555,328
2017	9,626 (1.9)	88,174 (17.2)	110,592 (21.6)	124,478 (24.3)	114,689 (22.4)	64,439 (12.6)	511,998
2018	7,641 (1.8)	74,166 (17.0)	89,557 (20.5)	101,039 (23.2)	99,847 (22.9)	64,087 (14.7)	436,337
2019	7,468 (1.8)	70,202 (17.2)	79,039 (19.4)	88,444 (21.7)	93,666 (22.9)	69,441 (17.0)	408,260
2020	8,265 (2.2)	66,918 (17.5)	69,966 (18.3)	79,703 (20.8)	89,251 (23.3)	68,529 (17.9)	382,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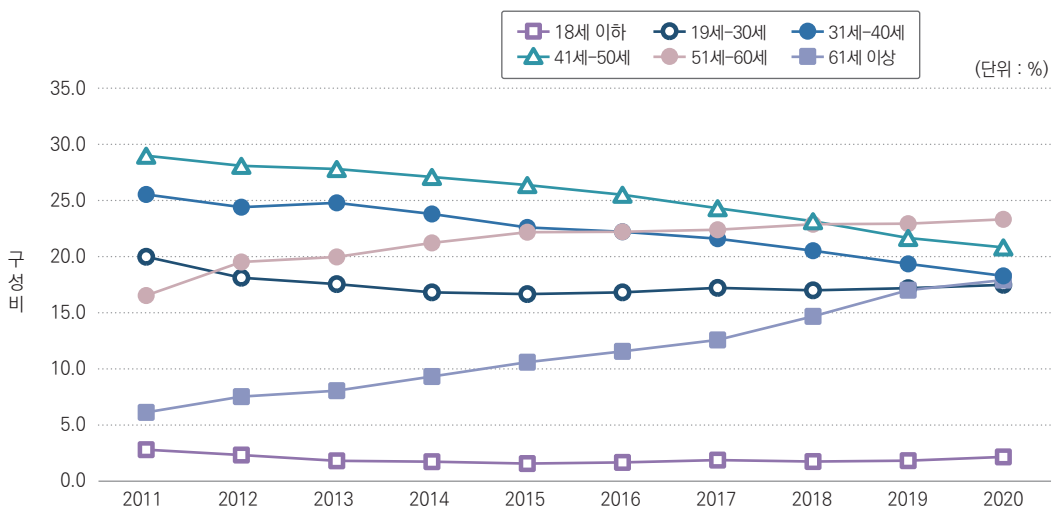


그림 21 교통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1년~2020년)

다. 전과

- 2020년 검거된 전체범죄자 중 벌금형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672,276명으로 전체의 4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는 20.6%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과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범죄자가 3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비중은 2011년 47.3%에서 2020년 41.0%로 지난 10년동안 6.3%p 감소하였다. 전과가 없는 범죄자의 비중은 2020년 20.6%로 지난 10년간 4.6%p 감소하였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비중이 10.9%p 증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22 전체범죄의 전과 여부별 분포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명, %)

연도	전과없음	전과있음	미상	계
2011	434,904(25.2)	817,068(47.3)	475,204(27.5)	1,727,176
2012	441,898(23.6)	865,724(46.3)	561,481(30.0)	1,869,103
2013	419,384(22.3)	879,679(46.7)	582,891(31.0)	1,881,954
2014	411,192(21.9)	852,244(45.3)	616,112(32.8)	1,879,548
2015	416,301(21.4)	859,477(44.1)	673,188(34.5)	1,948,966
2016	437,154(21.6)	897,996(44.5)	685,046(33.9)	2,020,196
2017	398,684(21.4)	811,653(43.6)	651,459(35.0)	1,861,796
2018	362,702(20.7)	731,911(41.8)	654,846(37.4)	1,749,459
2019	366,305(20.9)	717,603(40.9)	670,900(38.2)	1,754,808
2020	336,625(20.6)	672,276(41.0)	629,486(38.4)	1,638,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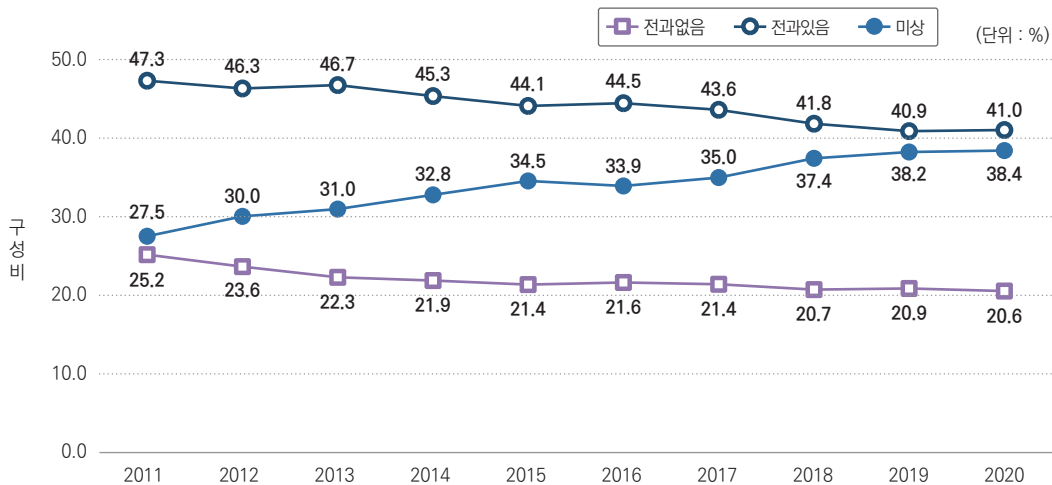


그림 22 전체범죄의 전과 여부별 비율 추이(2011년~2020년)

- 2020년 검거된 재산범죄 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42.6%로 지난 10년간 2.1%p 감소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19.5%로 지난 10년간 3.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5.4%p 증가한 가운데, 전체범죄자 대비 비중이 37.9%를 차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020년 검거된 강력범죄(흉악) 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43.8%로 지난 10년간 8.5%p 감소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32.2%로 지난 10년간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4.9%p 증가한 가운데, 전체범죄자 대비 비중이 24.0%를 차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020년 검거된 강력범죄(폭력) 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44.6%로 지난 10년간 5.6%p 감소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18.9%로 지난 10년간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8.6%p 증가한 가운데, 전체범죄자 대비 비중이 36.6%를 차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020년 검거된 교통범죄 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40.6%로 지난 10년간 9.1%p 감소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22.0%로 지난 10년간 6.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15.9%p 증가한 가운데, 전체범죄자 대비 비중이 37.4%를 차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23 주요 범죄군별 전과 여부별 비율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홍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2011	22.9	44.7	32.5	28.6	52.3	19.1	21.8	50.2	28.0	28.7	49.7	21.5
2012	20.5	42.1	37.4	29.9	52.4	17.6	22.5	50.4	27.1	27.7	48.7	23.5
2013	18.4	42.6	39.0	32.6	53.6	13.8	20.3	50.8	28.9	26.7	49.9	23.4
2014	19.0	42.6	38.5	34.2	52.3	13.5	19.6	48.3	32.1	26.0	48.0	26.0
2015	19.5	42.7	37.8	34.9	50.5	14.6	19.4	46.6	34.0	24.5	46.5	29.0
2016	20.0	42.9	37.1	35.3	49.1	15.6	19.1	45.4	35.5	23.2	46.7	30.0
2017	20.1	43.0	36.9	35.8	46.3	17.9	19.0	44.1	36.9	23.6	46.3	30.2
2018	19.1	42.2	38.7	33.9	44.5	21.5	18.9	43.5	37.6	23.4	43.8	32.8
2019	19.9	42.3	37.7	33.8	43.6	22.6	19.1	43.7	37.2	22.6	40.2	37.2
2020	19.5	42.6	37.9	32.2	43.8	24.0	18.9	44.6	36.6	22.0	40.6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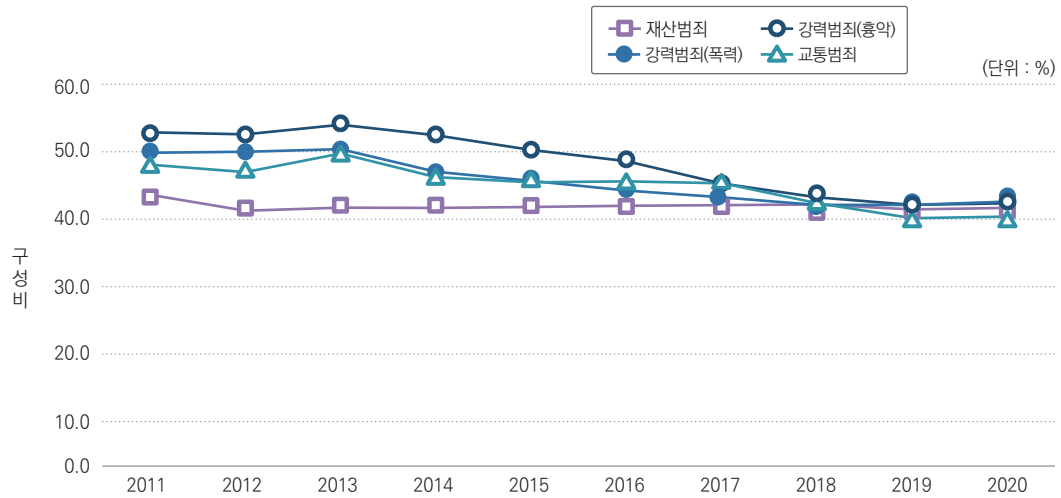


그림 23 주요 범죄군별 전자과자 비율 추이(2011년~2020년)